

K-컬처-케이팝 메가시티, 도약 준비

군산시민문화회관 활용 글로벌 K-pop 아카데미 · 경연대회 실행 준비

군산시는 케이팝 외국인학교 선도모델 개발 협의를 위해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를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회영 문화산업과장은 성공적인 케이팝 외국인학교 설립추진을 위해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사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시민문화회관을 무대로 한 케이팝 퍼포먼스 프로그램 추진 △시민문화회관을 K-문화산업 지원센터로 활용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이 그것이다.

또한, 케이팝 선도대학인 호원대의 체계적인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케이팝 퍼포먼스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2024년 6월 개관 예정인 시민문화회관을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배우는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케이팝을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방학 아카데미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K-컬처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군산시는 나이, 국적, 성별 성격과 상관없이 오직 케이팝으로 만나 군산이라는 낯선 곳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케이팝 주제의 웹메이킹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문화회관에 케이팝 외국인학교의 사전시험대로 K-컬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K-문화인력을 양성하고 K-문화기업과 협력을 통해 케이팝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K-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을 건의했다.

더불어, 내항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을 군산문화유산의 거점 지역을 활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조성중이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커넥트 군산이 다양한 문화컨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의봉 호원대 산학협력단장은 "군산시민들의 핵심 문화시설이었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재탄생과 동시에 호원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 케이팝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글로벌 케이팝 명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촌’

익산시, 농촌협약 사업... 합얼음 등 5개 지역 기본계획 중간보고

익산시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농촌협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합얼음, 황등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등 5개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주민위원회 대표, 전문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협약 사업은 총사업비 675억 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가 협약을 맺고 △합얼음,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 △오산면, 용안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농촌에 부족한 주민 생활 SOC 증진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 제공, 농촌지역 유해환경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 주민 설문조사, 현장포럼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환자 곁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

원광대병원 방문... 응급환자 비상 상황 대응 방안 마련 논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12일 원광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의료공백 위기 속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격려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각별한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 시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청취한 의료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광대병원은 익산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다. 25개 진료과목(분과 포함 37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808

개가 준비돼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익산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시장은 서일영 원광대병원장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들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 거듭 당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며 시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시 누리집에 공개되는 의료기관 운영 정보를 활용해 가급적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진료 예약 취소 수술 연기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익산시보건소(063-859-4820, 48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BGF리테일 전북지역부와 맞손... 복지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BGF리테일 전북지역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12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BGF리테일 전북지역부(대표 이종대)와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 마을 행복자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CU 편의점주를 우리 마을 행복자킴이로 위촉해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상호 협의, 신속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편의점은 결식 위기로 폐기예정 상품을 요청하거나 술을 주로 구입하는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카카오톡 채널 '익산주민복'과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시는 발굴된 대상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익산형 긴급지원, 기초생활신청,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종대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편의점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주 방문하는 단골 손님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동네 구석구석에 위치한 편의점은 주민의 일상을 가장 깊숙이 알아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위해 협력기관과 머리 맞대

익산시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협력기관들과 연계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일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에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익산경찰서 및 협력 기관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청소년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들이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실무위원회를 통해 △여성단체협의회 및 화양연화친구들 등의 장

학급 지원 △익산경찰서 생활물품 지원 △공납부대와 익산보물창고 등의 반찬지원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식료품 지원 △학교폭력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위기청소년을 도운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위한 각 기관의 서비스 정보 공유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심리상담 및 부모상담, 심리검사,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돕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유관기관과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2일 군산시 아리울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교통안전 강화 캠페인은 24년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을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시민들의 교통문화 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기관 · 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인식을 위한 안전속도 및 신호 준수 등을 집중홍보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어린이 숲체험 교실' 참여가족 모집

군산시는 24년 상반기 '어린이 숲체험교실' 참여가족 모집 접수를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숲체험교실'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숲속에서 뛰놀며 교감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함양시키는 놀이교실이다. 놀이로는 △숲 탐방 △숲 해설 △곤충 관찰 △자연물 놀이 등이 진행되며 올해는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체험을 더해 가족 유대감 증진 등 가족 여가 활동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가족 단위 대표자 1인이 군산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을 선정한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동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